

확대간부회의 토론 내용

2016. 4. 25. (월) 부서(동)장

토론
주제

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방안

1992년 10월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어려워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1. 일원1동장 노정환

- 아파트 화재 훈련을 구청 주관으로 지속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입주자 대표회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'아파트 관리규약' 변경을 검토하였으면 함
⇒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 법제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2. 교통정책과장 신동명

- 법령 개정 요청 시 개선에 따른 개인의 비용 부담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였으면 함
- 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'경량 칸막이 활용 대피 사례'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여야 함
-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중요하므로 '연기감지경보기', '소형소화기' 등의 저렴한 장비를 각 가정에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

3. 개포2동장 김진이

- (일원본동처럼) '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합시다' 운동 추진과 더불어 가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'가스콕(가스차단기)' 설치도 함께 홍보 하였으면 함

4. 지역경제과장 권승원

- 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도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작동 여부 및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, 소화기 비치 운동 추진과 더불어 소화기를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홍보하여야 함

5. 총무과장 박철수

- 피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특정 출입문을 지정하여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함
- 법규·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, 추가적으로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으면 함

6. 주택과장 정한호

- 현재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(경량 칸막이 앞에 장애물 비치 등의 문제점 발생),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

7. 건축과장 한일기

- 경량 칸막이 등의 대피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,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방법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므로 아파트마다 대피 방법 매뉴얼을 제작하여 가정 및 복도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

8. 개포4동장 우정수

- 옥상 출입문을 시진한 고층 아파트 및 빌딩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함
- 가정에 무상으로 설치하였던 '화재경보기'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므로, 후원 협체와 협의하여 (가능하다면) 향후 추가로 경보기를 설치 하였으면 함

9. 안전교통국장 박은섭

-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인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므로, 향후 부서별 행사 시 화재대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상영 및 홍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관심도 증가는 물론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10. 도시환경국장 배경섭

- 경량 칸막이 미설치 아파트 주민들은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(필요하다면) 참여 여부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
- 화장실 대피공간 시범설치 사업 시 안전 및 실효성 부분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였으면 함

11. 세곡동장 이광우

- 화재 특별 관리 주택 현황(장애인, 노인 가정 등)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정기 점검을 통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면 함

12. 기획경제국장 김용운

- 화재 시 대피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화재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외출 등으로 집을 비울 때, 가스·전기 시설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점검표를 가정마다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함